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



어느 겨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. 중국집 출입문이 열리더니 초라한 차림을 한 한 여자아이가 두 동생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.

"아저씨, 자장면 두 개 주세요." "근데 언니는 왜 안 시켜." "응,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. 아무 것도 못 먹겠어."

"누나, 그래도 먹어. 얼마나 맛있는데."

"누나는 지금 배 아파서 못 먹어.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." 큰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. "언니, 우리도 엄마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구." 큰 아이의 여동생은 건너편 테이블에서 엄마아빠랑 저녁을 먹고 있는 제 또래의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

바로 그 때 주방에서 아내가 급히 나왔습니다.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아내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.

"너, 혹시 인헤 아니니. 인헤 맞지." "네, 맞는데요. 누구세요."

아내의 갑작스런 물음에 큰 아이는 어리둥절해 했습니다. "네 엄마 친구야. 나 모르겠니. 영선이 아줌마." 개나리 같이 노란 얼굴을 서로 바라볼 뿐,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. "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네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구나. 그나저나 엄마아빠 없이 어떻게들 사니."

아내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. "조금만 기다리고 있어.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다 줄게."

아내는 잠시 후 자장면 세 그릇과 탕수육 한 접시를 내왔습니다. 자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. 알았지."

아이들이 가고 난 뒤 주방 아저씨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. "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예요. 엄마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네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울 수도 있고 해서."

"그랬군. 그런데 아이들의 이름은 어떻게 알아?" "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. 주방 바로 앞이라 안에까지 다 들리던데요." "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 돼 보이던지."

아내의 눈에 맺혀 있는 눈물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습니다. 가난으로 주눅 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아내를 보며 주방 아저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

..... 사랑은 "무례히 행치 아니하며"(고전 13:5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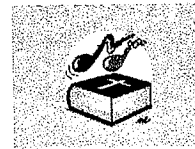
◀그때를 아십니까?▶ ("유머"를 잠시 멈추고 추억으로 여행을 떠납니다)

★ 소년 중앙

결표시 상단에 써있던 "안심하고 읽을 수 있는 아동 교양지"... 소년중앙 한권을 친구에게서 빌려가는 길이면 가슴이 벅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어깨동무, 새소년도 생각납니다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	'2003년 교회생활'건강한가정.건강한교회"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 5권 9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3년 3월 2일
☎520-9464, 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)		calvary.ca.to

호주머니 속의 사랑



이번 고국의 겨울이 예년에 비해 무척 추웠다는 소식에 홀로 계신 아버님이

어떻게 지내셨는지 마음 아파 하면서도 어찌 할 수 없을 때 이 짧은 글에 가슴이 더욱 메어졌습니다.

『겨울옷을 정리하는 어머니 옆에서 일을 거드는데 입기 어려울 정도로 낡은 외투가 비닐에 싸여 있습니다. 펼쳐 보니 색바랜 아버지의 외투였습니다. 겨울만 되면 이 외투를 걸치고 일을 나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.

"작년에 버렸어야 하는 옷인데 아직 입을 만 하다며 굳이 고집하시는구나. 돈 있으면 차라리 너희들 잠바라도 하나 더 사 주라면서."

아버지가 입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낡은 외투를 손에 들고 보니 50줄을 넘긴 아버지가 낫설게만 여겨집니다. 문득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난 저는, 그 이야기에서처럼 아버지의 겨울 외투 속에 아껴 두었던 용돈 만 원을 넣어 두었습니다. 어른들에겐 큰돈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그 외투를 입게 되었을 때 좋아하실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.

다음날 아침, 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.

"당신 이 옷 입을 수 있겠어요?"

"그럼, 아직도 멀쩡하잖아. 그럭저럭 이번 겨울은 나겠지. 다녀오리다."

저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. 그때, 내 방을 살며시 여는 기척이 있어 이불을 들쳐보니 나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였습니다.

"겨울옷을 꺼내 입었는데 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구나. 며칠 전에 뭐 사고 싶다고 했지? 네 엄마 보기 전에 얼른 받아라. 만원 받은 건 비밀이다."』

엄마가 딸에게

사은품은 공짜다
고맙게 받아라
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다
감사함으로 간직하거라

아버지가 아들에게

중국에선 남자가 밥하는걸
당연하게 여긴다더구나
우린 당연한걸
비정상으로 여기며 살고있지 않니?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광송 Gloria	"Calvary"	다 같이
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	인도자
*찬송 Hymn	30장	다 같이
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	45(요한 3장)	
*신앙고백 Apostle's Creed	사도신경	
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		주일학교
찬송 Hymn	444장	다 같이
기도 Prayer+		김종건 장로
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누가 22:54-62	인도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심자가성가대
설교 Sermon	'약한 자 빌라도'	김성국 목사
찬송 Hymn	135장	다 같이
헌금 기도 Offering Pray		인도자
응답송 Response Song	'이 믿을 더욱 굳세라' (1절:정종일,이선애 집사 가정. 2절:같이)	다 같이
축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◆2.3월의 예배위원◆

일자	주일기도	헌금위원	가족찬송	Tea Time
23	김종건	김 봉 희	정종일.이선애	김반석.김성국
2	노은숙	김 선 영	예 배 부	김인원.김종원
9	박일영	김 순 화	김경일.이선혜	김진근.민광호
16	이광희	김 심 흥	친교부(주방봉사)	박병민.박상옥
23	이규임	김 인 원	경덕현.김인희	박 실 .박재양
30	이재영	김 인 희	유성희(다슬.다은)	박태원.서동환

'2003년 교회표어
"건강한 가정, 건강교회"(마 18:4)
부모의 기도받는 자녀
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

*3주간 예배,친교참석 이후에
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
*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
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

주일예배: 낮 12시 | 수요일예배: 저녁 7:30 | 아동.학생부:주일 낮 12시 | 청년부:토 저녁 7시



☆ 고국의 지하철 사고 참사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구조대원여러분! 땀과 술 냄새이로 얼룩진 당신들의 얼굴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
- 1.교우소식
*등록:김영준 성도.김인숙 집사.수민.지선
☎832-5007 ☞2/267 Swanson Rd. Henderson
*원성호 집사 부친께서 심장수술후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. 기도부탁드립니다.
- 2.'부활절 헌금을 위한 성경쓰기 봉헌'(담당:박병민 집사. 항존직:김영길 집사)
*부활의 아침에 드러질 우리 손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.
- 3.남여선교회: 오늘은 남여선교회 모임주일입니다.TeaTime을 하시면서 갖습니다.
- 4.당회: 화요일 저녁 7:30 교회당.
- 5."성탄축하의 밤" Video Tape 제작: 원성호 집사
두고두고 기념으로 남겨도 좋으리만치 훌륭하게 제작되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*문의:김영길 집사(출연하신 교우중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드립니다)
- 6.아동부 토요 Activity: <일시> 3월1일(토) 오후 1시-3:30 <장소>Ice Skating
<회비> 12세이하 \$8.50. 13세 이상 \$12 <문의> 윤하나 집사
- 7.주차안내: 교회당 뒷편 주차장은 어린이,학생들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제공키 위해 다음주일부터 빈 공간으로 남겨두려 합니다. 어른들께서 조금씩 발품을 팔아주시면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. 주차위원의 안내에 웃음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*주차장: 1)교회 앞면 주차장 2)교회 앞 양면도로 3)U-BIX(교회옆 건물) 4)St.David(교회 건너편) 5)Southern Cross(교회 건너편).
*주방봉사.음향담당등 필요차량은 No 1-5번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.
- 8.교회용 VAN 구입:지난주에 구입하였습니다(1997년식 TOYOTA 8인승)
- 9.수요일예배: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, 성막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깊은 뜻을 찾아보려합니다. *수요일 저녁 7:30

◀**착한 시인**▶ **그대 잘 가라**
-도종환-
그대여 흘러흘러 부디 잘 가라
소리없이 그러나 오래오래
흐르는 강물을 따라
그릴 보내며
이제는 그대가 내 곁에서가 아니라
그대 자리에 있을 때
더욱 아름답다는 걸 안다
.....
그대의 자리로 그대를 보내며
나 혼자 뼈아프게 깊어가는
이 고요한 강물 곁에서
적막하게 불러보는 그대
잘 가라

일자	주 일	모임.행사
2	성찬식주일.사순절 시작 성회수요일(5).	결식자봉사(8)
9		믿음의어머니(10)
16	식사천교주일	
30	사랑의 이삭줍기주일	남여선교회.당회

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마지막 통화, 숨이 막혀 힘들다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목소리...떠난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 모두가 아픔으로 가득한 주간이었습니다. 삼가 유가족 앞에 머리 숙입니다